

매생이 초콜릿·고대미 화장품 장흥 특산품의 진화

매생이, 초콜릿 이어 항암·다이어트 제품 개발

토종벼 고대미 화장품, 피부노화 개선 탁월

장흥에서 생산되는 매생이와 고대미(古代米) 등 농특산물을 이용한 상품화가 활발하다.

최근 해조류인 매생이를 이용한 만든 초콜릿이 생산되는가 하면 친환경농업의 백미로 이름을 떨친 유기농 기능쌀 '고대미'가 특유의 영양을 담은 화장품으로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매생이 초콜릿 생산=㈜하버바이오는 지난 3월 장흥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부산면에 매생이 가

공공장을 완공,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하버바이오는 사업 1차 연도인 올해 매생이 초콜릿을 CJ(뚜레쥬르)와 17만개 납품 계약을 체결해

생산을 하고 있으며, 해태·하나로마트 등 대형 제과·유통업체 등과 계약을 주진하고 있어 대박이 기대된다.

전국 최대 찰 매생이 생산지인 군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150억원을 투자해 소비자의 기

호에 맞는 다양한 매생이 가공식품을 개발, 생산·가공·유통을 하나로 묶는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차 연도에는 생 매생이를 동결, 건조해 미세분말로 상품화하는 가공리인과 항암제품·면역증강 제품·다이어트 제품 등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상품화할 계획이다.

◇고대미 화장품 출시=최근 국내 굴지의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을 생산하는 스킨푸드는 고대미 추출물을 활용한 크림과 파우더 팩 등 6종의 고대미 영양리인 화장품을 출시해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고대미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기능을 가진

'폴리페놀'이 일반쌀 보다 200배 가량 많이 함유돼 있어 피부노화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미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전해지다 자취를 감췄던 우리 고유의 토종 벼로 재배조건이 까다로워 장흥의 '쇠풍구리' 작목화가 수차례의 시험작오를 거친 끝에 재배에 성공, 장흥 지역에서만 소량 생산되고 있다.

쌀의 색깔에 따라 적토미·흑토미·녹토미가 있다.

특히 적토미는 탁월한 기능성을 인정받아 80kg 한가마에 200만원에 이르는 등 일반쌀 보다 10배 가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광산구, 공유재산 찾기 빌벗고 나섰다

특별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광주시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가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 공유재산 찾기에 빌벗고 나섰다.

구의회는 특별위원회는 2개팀 11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8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구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일야와 대지·도로·행정사진 등 6300여 필지·1040만3306㎡(314만7000여평)으로, 14일 현재 30%(1890필지)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구의회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률과 관리위탁·용도변경과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의원은 "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피로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열 구의장은 "공유재산의 가치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세원발굴 등을 위해 관리실태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밀태기자 wtkee@

영암군 전 공무원 변화역량 강화교육

팀워크 향상 공동체 훈련 등

영암군이 산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변화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선 5기 첫 변화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전국 각지 교육 전문기관의 제안을 받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군을 바로 알고 느낄 수 있는 '도전 영암밸' ▲팀워크 향상을 위한 공동체 베이스·수상훈련 ▲활력증진 과정워نس ▲창조적 영암 인을 주제로 한 군수 특강으로 이뤄졌다.

이경일 시책관리담당은 "총 10기에 걸쳐 공직자 변화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직자들이 군민과 함께 영암을 얼마나 더 도약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박재신기자 pjs@



늦가을 국화의 깊은 향기 속으로

'국향대전' 29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

'2010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17일간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민추(晚秋)의 심향(深香)' 그리고 굴기(屈起)('늦가을')은 국화의 깊은 향기를 맡으며 향기를 갖고 일어나라는 의미)를 주제로 열리다.

이는 이번 국향대전은 가로 26m·세로 3.5m·높이 7.1m 규모의 '국

향천향'을 비롯해 50여 종의 향형

색상 국화로 제작한 '마법의 섬'

이 전시된다.

이 밖에도 알밤풀기와 고구마

구워먹기, 국화 관련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군인·청소년 5000원, 어린이·노

인 3000원, 유치원생 2000원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미로존 등 특색있는 이벤트존들이 선보인다.

특히 국보 제1호 송례문을 비

롯해 황소조형물, 대형 수목형 꽃

탑 등 특별제작된 대형 국화 기획

작품과 현애작, 다툼대작, 복조작

등 1300여점에 이르는 명품 국화

분야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 밖에도 알밤풀기와 고구마

구워먹기, 국화 관련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

련된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군인·청소년 5000원, 어린이·노

인 3000원, 유치원생 2000원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특히 국보 제1호 송례문을 비

롯해 황소조형물, 대형 수목형 꽃

탑 등 특별제작된 대형 국화 기획

작품과 현애작, 다툼대작, 복조작

등 1300여점에 이르는 명품 국화

분야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 밖에도 알밤풀기와 고구마

구워먹기, 국화 관련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

련된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군인·청소년 5000원, 어린이·노

인 3000원, 유치원생 2000원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남도의 젖줄 영산강 살리기 결의대회

(사)부국환경포럼 호남본부(본부장 강영원)과 영산강 어민회(회장 김좌룡) 및 영어법인니주 동광·공산 내수면 자율어업 공동체 회원들과 주민 등 200여명은 지난 15일 전남도청앞에서 영산강 살리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부국환경포럼 제공>

장흥을 건설 688번지 일대 1만 6909㎡ 규모로 건립되는 LH임대 아파트는 12층형 3동, 10층형과 7층형 각 1동 등 총 5동으로 구분된다.

이와 별도로 경로당과 보육시설·문고·주민 공동시설·근린생활 시설 등 부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한편 2년여만에 거주하는 장흥읍에는 해당신답단지 조성에 따른 요인과 주거환경개선 등의 영향으로 현재 3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 주택난 해소될 듯

LH, 임대아파트 318세대 건립… 2012년 입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흥지역에 장기 국민임대 아파트를 건립함에 따라 심각한 주택난이 오는 2012년 이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장흥군과 LH 광주·전남본부

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차상위 계층을 선분양 조건으로 ▲36㎡(17평형) 190세대 ▲46㎡(20평형) 128세대 등 총 318세대 '30년 장기 국민임대 아파트가 오는 2012년 4월 입주 계획으로 최근 착공에 들어갔다.

성, 국립 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민수 원장은 "도내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새로운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육성된 품종을 전남도내 종묘업체에 생산과 판매권을 이전해 안정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종자로 얼티지 불비용과 생산비를 절감해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현재까지 참다래·마늘 등 총 12종목 65품종을 육성해 매년 5000만원을 들여

학산면 매월

리 출신인 신 대표는 인재육성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영암의 대표 브랜드 '달마지쌀' 1만5000여포를 구입, 회사 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지급했다.

또 신대표는 올해 5500만원을 들여 학산면 기초수급자 184세대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등 고향발전에 헌신한 공이 인정됐다.

한편 시장식은 오는 30일 '제35회 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열린다.

/중부취재본부=박재신기자 pjs@

도농기원, 신품종 보호권 산업체에 이전

흑색토마토·멜론·장미 등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자체 육성한 흑색토마토와 멜론·장미 등 신품종 보호권을 도내 2개 종묘업체에 이전했다.

이번에 산업체에 이전된 품종은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리아코펜'(lycopene) 향성이 일반 토마토에 비해 2배나 풍부한 흑색 토마토 '헤이'를 비롯해 ▲고운기 적성성이 높아 딸기 후작(後作) 재배에 적합한 네트 멜론(얼스 그랑프리) ▲부케용 장미(이노센스) 등 7개 품종이다.

특히 이들 품종은 현지 평가결과 흰가루병에 매우 강해 친환경재배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현재까지 참다래·마늘 등 총 12종목 65품종을 육성해 매년 5000만원을 들여

성, 국립 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민수 원장은 "도내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새로운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육성된 품종을 전남도내 종묘업체에 생산과 판매권을 이전해 안정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종자로 얼티지 불비용과 생산비를 절감해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품종은 현지 평가결과 흰가루병에 매우 강해 친환경재배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현재까지 참다래·마늘 등 총 12종목 65품종을 육성해 매년 5000만원을 들여

학산면 매월

리 출신인 신 대표는 인재육성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하고 영암의 대표 브랜드 '달마지쌀' 1만5000여포를 구입, 회사 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지급했다.

또 신대표는 올해 5500만원을 들여 학산면 기초수급자 184세대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등 고향발전에 헌